

# 정본화(定本化)와 독본화(讀本化)

국학진흥의 기초

서대원

충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조교수, 중국철학 전공  
dayuans@hanmail.net

- I. 머리말
- II. 국학 연구의 진작과 국제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III. '정본화(定本化)'란 무엇인가?
  - IV. '독본화(讀本化)'란 무엇인가?
  - V. 왜 '정본(定本)', '독본(讀本)'인가?
- VI. 맺음말

## I. 머리말

이 글은 국학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을 시작하기 이전에 ‘국학(國學)’이란 무엇이며 왜 국학을 진흥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서술하겠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는 보편학이 있으며 이 보편학 이외에 특수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른바 ‘국학’은 특수학 범주에 들어가며 단지 우리에게만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이런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상 ‘보편학’과 ‘특수학’은 인식 공유의 광범도에 의해 구별하는 것으로 상대적이고 엄밀하지 않게 지정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엄밀한 방법으로 구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문의 발생’이란 측면에서 보면, ‘보편학’과 ‘특수학’은 구별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발행하는 보편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학문은 ‘개인학’, ‘지역학’, ‘국학’이라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왜냐하면 학문이란 본래 어떤 개인을 매개로 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보편학’과 ‘특수학’에 대한 분별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며 모든 학문은 발생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특수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것은 『논어(論語)』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사람은 도를 넓힐 수 있으나 도는 사람을 넓힐 수 없다(人能弘道 非道弘人).<sup>1)</sup>

보편적인 ‘도(道)’의 존재 여부 혹은 ‘도’의 내용과 성격 등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설령 보편적인 도가 존재한다 해도 구체적인 사람을 통하지 않고 그것이 표현되거나 천명될 수는 없다. 만약 보편적인 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학문이란 더더욱 어떤 인간의 고안물 혹은 창작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학문은 사실상 필연적으로 ‘개인학’, ‘지역학’, ‘국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

1) 「위령공」.

그리스 철학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개인학이고, 지중해 연안 어떤 지역의 지역학이며, 서구 유럽 여러 나라의 국학이다. 그리스 학문은 장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개인들이 몰랐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기타 지역과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 정초되어 현재 비교적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다수가 받아들이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마치 보편학처럼 느껴질 뿐이다. 천만보 양보하여 그것이 보편학이라 할지라도 '발생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개인학', '지역학', '국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것은 일종의 특수학이다.

인류의 학술과 문화란 결국 이 특수학들의 경연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다. 크게 인류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개인학', '지역학', '국학'을 진작(振作)하여 발전시켜 인류의 문화가 보다 훌륭한 경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 모든 국가가 해야 할 책무이자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단지 이런 노력은 단순한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선택', '정리' 등을 수반하므로 '국가' 단위의 '국학'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국학의 진흥'은 이와 같은 인류문화적인 책무와 기여 이외에 다음과 같은 의미가 존재한다. 크게 보면 '자기에 대한 이해'와 '국가민족의 자존 및 존재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자기에 대한 이해'에 대해 살펴보자. '국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과 성격이 달라지겠지만 그 안에 담기는 기본적인 것들은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현실에 대해 고민해온 지적인 선각자들의 사상들이라 말할 수 있다. 즉, 이 지역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나'의 정서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농축되어 있는 '우리 국가와 민족의 정화'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물론 '우리 지역', '우리 현실', '우리 역사', '우리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은 결국 넓은 의미의 '나'와 다름없다. 즉, 거기에는 넓은 의미의 '내가' 농축되어 있는 것이기에 국학을 버리고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자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심도 있게 국학을 연구해야 하며, 국학 연구의 수준에 따라 나에 대한 이해의 양과 질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국가 민족의 자존 및 존재감'은 위의 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성취에 대해 자존과 존재감을 느낀다. 이것은 인간이

문화와 문명을 통해 자기의 자존과 존재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국학은 사실상 자기의 문화와 문명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국학’의 상실은 자기의 문화와 문명에 대한 상실을 의미하며 이것은 결국 일종의 자괴감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학을 왜 진흥시켜야 하는가? 그 이유는 자명하다. 가까운 것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자.

첫째,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자기에 대한 자존과 존재감을 찾는 것이다.

셋째, 인류의 문화와 문명에 기여하는 길이다.

현재 우리는 여러 국학이 국학이란 명찰을 떼고 인류의 문화와 문명에 기여하는 현상을 자주 본다. 비록 여러 이름으로 등장하지만 결국 ‘개인학’, ‘지역학’, ‘국학’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큰 의미에서 ‘국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우리도 이제 우리 국학에 대한 연구와 정리를 통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자존과 존재감을 인식하고’ ‘세계의 문명에 기여해야 할’ 시기이다. 이것은 모든 시기에 걸친 업무이기는 하지만 만국 국학들의 경연 속에 들어와 있는 현재 더욱 절실한 시대적 소명이며 책무라고 볼 수 있다.

## II. 국학 연구의 진작과 국제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학’ 연구는 한 나라 학문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학문 분야로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학의 발전과 세계문화의 발전을 위해 국학은 세계인과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는 이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실상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작업을 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국가적인 국학 연구의 진작과 한국 고전의 영역(英譯)일 것이다. 한국 국학과 고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학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한국 고전의 영역을 통해 국학의 격을

높이고 세계와 소통하겠다는 전략이다. 필자는 이런 노력에 대해 아낌없는 감사와 칭찬을 보내고 싶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정녕 국학을 진작하고 국제화하는 지름길이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토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산발적인 연구가 과연 효율적인지 하는 문제와 고전 영역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국학 연구의 진흥과 국제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 가장 시급하고 효율적이며 과급력 있는 방법은 ‘정본화(定本化)’와 ‘독본화(讀本化)’ 사업이다.

이런 작업이 왜, 어떻게 국학 연구를 진흥시키고 국학을 세계화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정본화’와 ‘독본화’라는 두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 Ⅲ. ‘정본화(定本化)’란 무엇인가?

‘정본화’란 교감을 통해 올바른 판본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높은 안목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작업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오탈자 수정, 탈문(脫文)이나 연문(衍文)에 대한 처리, 이체자(異體字)에 대한 정리 등이 들어간다.

첫째, 오자나 탈자를 대교(對校) 등의 방법으로 찾아내어 바로잡아주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탈문이나 연문에 대한 부분도 처리해주어야 한다.

셋째, 이체자를 통행자로 바꾸어주어야 한다. 우리가 진행했던 ‘우암 자료 집성’ 사업에서는 『강희자전(康熙字典)』에 의거하여 이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에는 일반적으로 ‘셋째, 이체자 작업’ 이외에는 반드시 교감기(校勘記)를 부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사고전서(四庫全書)』를 참고하면 된다. 『사고전서』 작업은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정본화 사업이다. 물론 그 성과를 볼 때,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기존의 문헌에 위에서 말한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참고로 『사고전서』는 세 가지 작업이 이루어졌다.

첫째, '제요(提要)' 작업을 하였다. 이것만 독립적으로 모은 『사고전서 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란 책이 있다. 일종의 해제 작업이다.

둘째, 교감(校勘) 작업이다. 방대한 작업이기에 작품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교감이 되어 있다.

셋째, 교감기 작업이다. 교감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이 중 '첫째'는 '정본화'의 범위를 벗어나 있지만 사실상 '정본화를 위해' 혹은 '정본화된 결과의 보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전형적인 정본화 사업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할 때 한국 자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첫째, 정본화 사업을 진행할 적에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 바로 '대교'이다. 즉, 각기 다른 판본에 대한 정밀한 비교이다. '대교'는 다양한 판본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물론 문헌에 따라 사정은 다르지만, 한국 문헌의 경우 판본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즉, 대교가 생각만큼의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상재(上梓) 이전의 자료를 모두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둘째, 한국에는 적지 않은 미완고들이 존재한다. 즉, 수고본(手稿本)들이다. 예를 들면, 다산의 작품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럴 경우 다시 원칙을 만들어서 정본화해야 한다. 즉, 『여유당전서』와 『송자대전』을 같은 방법으로 정본화할 수는 없다. 전자의 경우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의견통일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즉, 미완고에 대한 방법론의 모색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한자 자형의 문제이다. 현재 한국에는 다양한 한자 자형이 존재하며,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여러 형태의 한자 자형이 존재하였다. 정본화에 앞서 한자 자형의 '통일'과 학계에서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본화는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할 것이다.

정본화란 한마디로 한 상품이 진열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작업이다. 아무리 가치 있는 작품이라도 정본화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상품이 될 수 없다. 정본화되지 않은 판본은 엄격하게 말하면 모두 미정본(未定本)이다.

정본화는 단순히 보이지만 매우 높은 수준의 안목이 필요하며 동시에 극도로 지루한 작업이다. 하지만 이 작업을 거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해도 그것은 잠재적인 가격을 가진 박옥(璞玉)에 불과하다.

#### IV. ‘독본화(讀本化)’란 무엇인가?

‘독본화’란 정본화 이후 독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작업이다.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본화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독본화 정도는 되어야 접근이 허용된다. 즉, 대부분의 독자 입장에서 보자면 ‘정본화’는 그 의의를 쉽게 느끼지 못한다.

‘독본화’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거치는 것이다.

첫째, 작업할 문헌을 선정한다.

둘째, 선정이 이루어지면 그 선정된 책에 대한 국내외의 선본(善本)을 구하고 여러 판본을 비교하여 교감한다. 교감은 기본적으로 각교(刻校)와 이체자(異體字)의 처리 및 내용 교감이 포함된다. 즉, 정본화 작업을 진행한다.

셋째, 원문에 구두나 표점구두를 시행한다.

넷째, 해제와 주석을 가한다. 여기에서 해제라 함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간략한 설명 방식이 아닌 전문적인 도움말을 의미한다. 본문의 주(註)도 단순한 개념 설명이 아닌 압축된 소(疎)에 가까운 주어야 하며, 그중에 나타나는 내용이나 역사적인 상황 역시 모두 간결하면서도 빠짐없이 설명되어야 한다. 즉, 독자가 일반 한자사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모두 해제와 주에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작업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뒷부분에 교감기와 찾아보기를 반드시 부가한다.

‘독본화’ 작업이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독자가 유관 언어의 사전만 가지고 있으면 읽을 수 있는 상태까지의 작업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정본화의 기초 위에 다양한 서비스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싶다. ‘독본화’도 ‘정본화’와 마찬가지로 문헌에 대한 작업이다. 독자에게 그 문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독자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까지가 독본화 작업이다. 즉, '독본화'는 작업 주체자가 독자에게 어떤 판단을 강요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부분은 사소한 듯하지만 독본화의 성과와 적지 않은 관련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 말하는 정본화는 일반적으로 정본화와 독본화 중간쯤 되는 어떤 상태를 말한다. 필자는 아직까지 광복 이후 학계에서 진행한 작품에서 순수한 '정본화'와 엄격한 의미의 '독본화' 작업을 본 적이 없다.<sup>2)</sup>

여기에서 부대적으로 몇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한다.

국학의 국제화를 고려하며 '정본화'와 '독본화'를 할 경우 '교감기'와 '주'의 언어에 대한 문제이다.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한문으로 할 것인가? 한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영어로 할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한자를 노출시키는 한글로 작업하는 것이다. 우선 가능한 한 한중일 등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모두 알아볼 수 있는 한자어와 원문의 한자어를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한글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면 대체적인 내용은 한자어에 담길 것이다. 그러면 한자어를 사용하는 문화권과 한자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글을 대략 이해할 수 있고, 아울러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한글 조사 등을 공부할 수도 있다. 즉,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글에 대한 호기심도 발생시킬 것이다. 만약 한문이나 영문으로 작업할 경우, 이 작업에 참여할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영문 같은 경우 원문과의 상이(相異)로 인해 별로 큰 효과를 거둘 수도 없다. 따라서 한자를 노출시키는 방식이 국내외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2) 조선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정본화 작업과 독본화 작업이 모두 존재한다. 일부 문집 등은 나름대로 정본화되어 있으며, 일부 주석은 은연중 독본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V. 왜 ‘정본(定本)’, ‘독본(讀本)’인가?

우선 왜 정본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이 문제는 잠시 『사고전서』가 가지는 의의와 영향력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사고전서』와 같이 정본화된 서적은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다.

중국의 국내 연구에서도 『사고전서』의 영향력은 막강하며 국외에서는 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이다. 국내의 입장에서 보면, 표준판본이 존재하여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으며, 한자 자형 등이 통일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학적 수준을 갖추면 접근이 가능하다. 이것은 산과 들에 있는 재료와 공장에서 정문으로 나온 상품 그리고 심사 없이 출고한 상품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닷물로 음식을 조리하지 않고 소금을 사용한다. 단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고 판매하지 않는 소금에 대해 별로 신용을 하지 않는다. 신용하지 않는 상품은 구매력을 가지기 어렵다. 즉, 모든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출시한 상품이라야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그 안심을 통해 신뢰를 하고, 그 신뢰를 통해 구매를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비록 구매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은 제값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국내와 국외, 특히 국외에서 한국학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한국의 전적이 정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당한 대우가 표준화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작품은 제값을 받을 수 없다.

이 외에 교육과 연구 그리고 문화적 교류와 전파 면에서 정본화의 파급효과는 거대하다.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정본화가 없는 국학 연구는 사상누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이 점은 본질적으로 국내에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국내에서 사상누각이라면 국외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이다. 국학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학 자료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그럼 독본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자.

현재 많은 한국 고전이 국역되었다. ‘국역 고전’의 본래 의도는 한국 고전에 있는 자양분이 현재를 살찌우게 하려는 것이었고, 효과가 전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국역 고전은 누가 읽는가? 중고등학생? 일반 대학생?

직장인? 대부분 아니다. 국역 고전은 대부분 국역되어 있지 않은 원본을 거칠게라도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매하고 읽는다. 즉, 국역이 되었다고 한글을 아는 모든 사람이 읽어주는 것은 아니다. 한국 고전 영역 사업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고전이 영역되었다고 영어를 아는 세계인이 그 책을 읽어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해이다.

필자가 국외에서 만난 외국 학자 중 한국의 고전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학이나 중국학으로 출발한 동아시아학 전공자들이었으며, 그들은 이미 우리의 고전을 원본으로 본 적이 있고 '정본'과 '독본'의 부재로 말미암아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대부분 중국 한적이나 일본 한적을 본 적이 있고, 볼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아시아의 지식인, 특히 고전 연구자들이라면 당연히 한적을 볼 수 있다.

만일 영역을 한다 해도 독자는 이들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서점에 가서 한글로 된 모든 서적을 구매하지 않는다. 언어 못지않게 궁금함이 선재해야 구매하고 독서한다.

'정본'과 '독본'은 이들에게 매우 강렬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우선, 신뢰감을 줄 것이다. 우리 연구자들은 국역고전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또 한국 고전의 영역본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우리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인들 신뢰하겠는가?

가장 안정된 영역은 훌륭한 독본을 본 영미인이 영역하는 것이다. 즉, 영역은 후차 작업이다. 제대로 된 영역을 위해서라도 '정본화'와 '독본화'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정본화와 독본화가 이루어지면 가깝게는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멀게는 세계의 동아시아학 전문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차츰 세계의 지성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국 매우 강렬하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필자가 해외에서 만난 서구 학자 중에 일본학 전공자와 주자학 전공자들은 한국 자료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정본화'와 '독본화'는 해외에서의 영향력 못지않게 우리 국내 국학교육의 풍광을 바꾸어놓을 것이다. 대학 강의의 주체로서 많은 고민을 던져줄

것이며, 강독과 접근에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덜어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훨씬 쉽게 고전의 바다에 입수(入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미 위에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중 제일 어려운 점은 인재 풀이 지나치게 부족하고 국가의 관심이 너무 빈약하다는 점이다.

필자는 한국 국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국학총서’가 선정되고, 그것이 진자한 방식으로 ‘정본화’되고, 그중 중요한 서적은 다시 훌륭한 방식으로 ‘독본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한국 국학 발전의 첫걸음이자 토대일 것이다.

## VI. 맺음말

위의 글을 통해 ‘정본화’와 ‘독본화’ 작업을 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국학 연구의 튼실한 토대를 마련하고, 국외에는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국학을 소개하고 국학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작업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필자가 보기에 ‘정본화’와 ‘독본화’는 선택의 여지없이 현재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과업이다.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몇천 년을 살아온 정신사를 정리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왜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과거 한국학은 일반적으로 일본을 통해 해외에 알려졌다. 물론 문제가 많은 방식이었고 정면적이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체계적이거나 심도 있는 방식도 아니었다. 이 방식은 물론 긍정적이지 않고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지만 매우 위협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좀 억울한 면이 있다는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서 중화대장경을 통해 한자문화권의 불전을 정리할 뜻을 가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거대한 작업을 완수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유장(悠長)을 통해 세계 유학 자료를 집대성하고자 한다.

한국학 자료는 대부분 이 ‘불전’과 ‘유장’에 포함된다. 즉, 우리 국학의 정화 부분은 대부분 이 작업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작업들은 '정본화'와 '독본화'의 중간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세계는 이제 중국을 통해 한국학 고전들을 접하게 될 것이며, 중국의 가공에 의존하여 한국학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 시작하지 않아 한국학의 문헌적인 판권을 중국이 장악하게 된다면 우리도 중국에 의존하여 한국학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사실상 현재 우리가 '정본화'와 '독본화' 작업을 시작한다 해도 이미 상당한 역량을 구축하고 있는 중국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단지 현재 '정본화'와 '독본화' 작업을 하지 않아 이런 작업을 할 인재 풀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국학의 토대를 스스로 만들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정본화'와 '독본화'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본화'와 '독본화'를 할 수 있는 인재를 더욱 중요하다. 이런 인재가 없다는 것은 '밀' 생산지도 '밀가루 공장'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빵집과 같다.

필자가 보기에 지금 이미 늦었지만 이 작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그 일차적인 목적은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가 아니라 풍부하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 국 문 요약

국학은 일종의 지역적·민족적·국가적인 영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국학에 대해 일종의 특수학으로서 보편학과 다른 학문이라 여길 수 있다. 그러나 학문은 인간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모든 것은 특수학으로서 이 특수학들의 경쟁을 통해 보편학이 성립되는 것이다.

우리도 물론 우리의 국학을 연구 계발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우리 국학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즉, 이것은 우리의 자긍심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인류문화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길을 가기 위해 현재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본화(定本化)’와 ‘독본화(讀本化)’이다. 정본화란 문헌 교감 등 문헌에 대한 고증을 거쳐 신뢰할 수 있는 판본을 만드는 작업이고, 독본화란 그 기초 위에 그 정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해설을 해주는 작업을 말한다.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면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국학 연구뿐 아니라 국제적인 한국학 연구에도 거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투고일 2012. 6. 2.

수정일 2012. 8. 22.

게재 확정일 2012. 8. 23.

**주제어(keyword)** 국학(National classics), 정본화(Authentic book), 독본화(Reading book), 문헌(Text),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